

오시코 신사 가을 축제

10월 셋째 주 토요일, 일요일에 개최되는 활기찬 축제입니다. 불거리는 신여 순행입니다. 젊은이들이 다카사고의 신인 오나무치가 모셔진 붉은 신여를 메고, 나이 많은 이들이 스쿠나히코나가 모셔진 노란색 신여를 짊어집니다.

행렬에서는 신여가 서로 격렬하게 부딪히는데, 이때의 에너지가 신여 안에 있는 신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신들의 수호신인 사루타히코로 분장한 남성이, 주변에서 소리치는 젊은이들에게 막대기를 휘두르며 쫓아내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이 제사의식은 신들의 강인함을 상징합니다.